

한·콜롬비아 FTA체결이후 교역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박종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A Study on Trade Structure after Korea and Colombia FTA

Chong-Suk Park^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aegu Catholic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1, Revised 20 December 2021, Accepted 23 December 2021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de Structure after Korea and Colombia FTA, and identify its problems and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taken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reinforce economic cooper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improve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the study, an empirical analysis is necessary. However, due to limited data access, the study will approach the topic of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olombia with various statistics and literature.

Findings -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hanges in import-export goods between Korea and Colombia, as trade is focused on specific items. Second, alth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the Colombia is centered in manufacturing and wholesale & retail, there should be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by indus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commercial coopera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olombia entered into force in 2016. Under the agreement, both countries will eliminated all tariffs within ten years after it takes effect. Reinforc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olombia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in terms of entering and dominating Colombian market.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e Colombia, and corporations that aim to enter Colombian market face difficulties due to lack of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trends of problems of trade between Korea and Colombia and suggests solutions for boosting trade to provide proper strategic guidelines for Korea that are planning to expand to Colombian market.

Keywords: Colombia, FTA, Investment, Latin America

JEL Classifications: F15, N76, O54

I. Introduction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신규시장의 개척과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 지난 2002년 중남미지역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의 확보와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6월

^a First Author, E-mail: favianp@cu.ac.kr

기준으로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총 17건이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중남미지역은 대표적인 한국의 수출효자시장으로 동 지역의 국가들은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시장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중남미 지역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6년 7월에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지역내에서 인구 3위의 국가이자 원유와 석탄 등의 자원부유국이지만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중남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원자재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2020년 국내총생산규모(GDP)는 총 2천 7백억 달러로 중남미지역에서 4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IMF의 분석에 의하면 2021년 콜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2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1%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지역의 국내총생산규모 상위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IMF, 2021). 2021년은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지 6년차이다.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중남미지역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문 제17.8조에서도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교역증진과 자원협력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콜롬비아의 교역관계 및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과 콜롬비아간의 교역규모가 멕시코, 브라질, 칠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먼저 Jang, Gi-Young (2010)은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며 양국간의 협상시 한국은 자동차 수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에게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관세인하 및 철폐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Park, Mi-Sook (2010)은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자원협력,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보,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Cin, Beom-Cheol (2012)은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KOTRA (2021)는 콜롬비아 비즈니스 환경분석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 속에서의 주요 쟁점사항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고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의 교역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의 교역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시장진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콜롬비아 FTA체결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한·콜롬비아간 FTA 출범배경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콜롬비아간의 교역관계를 살펴보다라도 한국은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고 콜롬비아는 원유 및 광산물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남미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협정 발효 이후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확대정책으로 시장선점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한국은 중남미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시장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중남미지역 시장 진출을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이 중남미지역 국가와 체결한 세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한·콜롬비아간의 교역비중이 높지 않고 콜롬비아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이유는 중남미지역내에서 지정학적으로 콜롬비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풍부한 자원 및 외국인 투자환경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즉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으며 석유 및 동,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다른 중남미지역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과 환경이 개방적인 국가이다.

Table 1.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Colombia FTA

Major Contents	
2009.12.07.~09.	-Korea and Colombia to hold first round of free trade negotiations -Seoul, Korea. First round of free trade negotiations
2010.03.05.	Bogota, Colombia. Second round of free trade negotiations
2010.05.07.	Los Angeles, U.S. Mini round of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olombia
2010.06.18.	Seoul, Korea. Third round of negotiations
2010.09.06.~10.	Washington, DC, U.S. Second mini round of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olombia
2010.10.04.~08.	Cali, Colombia. Fourth round of negotiations
2011.02.07.~09.	Los Angeles, U.S. Third mini round of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olombia
2011.10.10.~14.	Seoul, Korea. Fifth round of negotiations
2012.04.23.~27.	Cartagena de Indias, Colombia. Sixth round of negotiations
2012.06.11.~13.	Seoul, Korea. Seventh round of negotiations
2012.06.25..	Bogota, Colombia. Korea and Colombia conclude negotiations for a free trade agreement
2013.02.21.	Seoul, Korea. Colombia and Korea sign free trade agreement
2016.07.15.	Korea and 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Source: http://www.sice.oas.org/TPD/COL_KOR/COL_KOR_e.ASP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시 콜롬비아의 제안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8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제1차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범위 및 분과구성 등 운영세칙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2010년 3월에 콜롬비아의 보고타(Bogota)에서 개최된 제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협의와 상품양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차 협상부터 2012년 6월 제7차 협상까지 양국은 협정문의 핵심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2012년 6월에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였다. 이후 2014년 4월에 양국의 국회비준을 거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은 2016년 7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¹⁾된 것이지만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콜롬비아와 최초로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상품 양허

한·콜롬비아 양국은 제7차 협상까지 협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상품별 양허에 관해 합의를 하였다. 먼저 한국의 양허 수준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

1) 아시아 국가 중에서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국가는 태국이지만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12월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해당된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수는 HSK 10단위 기준으로 총 9,787개로 82.4%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10,725개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1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6.1%에 해당하는 총 11,419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HTSC 10 단위 기준²⁾으로 협정 발효 즉시 품목 비중 60.6%에 해당되는 4,390개의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5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82.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10년 이내에 96.8%까지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마늘, 양파 등과 같이 주요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를 하여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Table 2. Tariff Schedule of Korea and Colombia FTA

Staging Category	Korea		Colombia	
	Number of Item	Weight	Number of Item	Weight
Immediate Elimination	9,787	82.4%	4,390	60.6%
3 years	268	2.3%	33	0.5%
5 years	670	5.6%	1,547	21.4%
7 years	136	1.1%	503	7.0%
9 years			1	0.0%
10 years	558	4.7%	529	7.3%
Total	11,419	96.1%	7,003	96.8%

Sourc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olombia (2016).

또한 협정 발효 이후 콜롬비아의 최혜국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세율이 최혜국세율 보다 높은 품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자유무역협정세율이 최혜국세율 보다 높은 경우 일정기간동안 최혜국세율보다 0.5%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특혜방안을 마련하였다.³⁾ 한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정문에 따른 방식에 의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동일하게 자율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또한 양국은 협정문 제2.5조에서 원산지와 관계없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규정하였고⁴⁾ 제2.6조에서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III. 한·콜롬비아간 교역 현황 및 문제점

1. 한·콜롬비아의 교역현황

1) 수출입금액 규모

중남미지역에 있어서 브라질과 멕시코 다음으로 3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한국을

2)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문에서의 AACOL(Arancel de Aduanas de La República de Colombia)은 영어로 HTSC를 의미한다.
 3) 콜롬비아 관세양허표에는 “콜롬비아는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동안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4) 일시반입 대상 물품으로는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 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스포츠용으로 반입하는 상품 등이다.

포함해 총 1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5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콜롬비아간의 교역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콜롬비아의 주요 교역상대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콜롬비아의 대외 교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국가 중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콜롬비아는 미국에 총 41억 9천 3백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수입액은 총 31억 9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원유는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다(Gustavo Rodriguez Albor, David Luquetta Cediel and Daniela Lopez Valderrama, 2017). 중국에 대한 수출금액은 9억 달러에 해당되었지만 수입금액은 30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주요 수출거래대상 국가는 파나마,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지역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 국가들이 상위 10개국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국 중 22위, 수입국 중에서는 14위의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동일하게 수출금액보다는 수입금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금액의 규모는 다른 중남미지역 국가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콜롬비아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수출의 경우에는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비중이 높고 수입의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시장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상대국 중에서 칠레, 페루 및 멕시코는 콜롬비아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 상대국 순위에서는 10개국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입 상대국 순위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3. Colombia's Exports/Imports by Countries(2021, First Quarter)

(Unit: Million USD, %)

	Export		Import		
	Amount	Market Share	Amount	Market Share	
USA	4,193	37.98	USA	3,192	25.21
China	924	8.37	China	3,097	24.46
Panama	591	5.35	Mexico	787	6.21
Brazil	490	4.44	Brazil	639	15.05
India	404	3.66	Germany	414	3.27
Chile	388	3.51	France	282	2.22
Ecuador	385	3.49	India	280	2.21
Peru	281	2.55	Japan	278	2.20
Mexico	228	2.07	Spain	265	2.10
Korea	97	0.88	Korea	190	1.50
Total	7,981	72.3	Total	9,424	84.43

Source: SICEX (2021).

다음으로 한·콜롬비아간의 교역현황을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의 경우 지난 2010년 한국의 수출금액은 총 13억 8천 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의 경우에는 총 4억 3천만 달러로 한국이 9억 5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은 국제유가의 상승 및 내수시장의 경기 회복에 따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률이 4.3%를 기록한 해이다. 이후 2015년까지 수출금액은 10억 달러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6년에는 전년대비 24.4%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4. Korea's Exports/Imports to Colombia

(Unit: Million USD, %)

	<u>Export</u>		<u>Import</u>		<u>Trade Balance</u>
	Amount	Increase or Decrease	Amount	Increase or Decrease	Amount
2021. 1Q	193	10.9	77	-28.3	116
2020	593	-48.1	683	-4.8	-90
2019	1,143	13.0	718	-13.9	424
2018	1,012	24.3	834	28.1	177
2017	813	-4.6	651	50.5	162
2016	853	-24.4	432	33.8	420
2015	1,128	-25.2	323	-46.8	805
2014	1,509	12.4	607	194.1	901
2013	1,342	-8.5	206	-50.2	1,135
2012	1,467	-9.1	414	9.1	1,052
2011	1,613	16.2	380	-12.1	1,233
2010	1,388	74.2	432	245.9	956

Source: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21).

이러한 현상은 2017년에도 수출금액이 전년대비 4.6%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주된 원인은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콜롬비아 내수경제의 침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⁵⁾ 원자재 위주의 수출과 완제품 위주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롬비아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한·콜롬비아간의 교역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는 콜롬비아의 경제회복으로 수출금액이 다시 10억 달러대에 진입을 하였으며 2019년에도 전년대비 1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교역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48.1%,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4.8%로 모두 감소하였고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1년 1분기에는 다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는 1억 달러대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2) 수출입 품목별 규모

한·콜롬비아간의 수출입 품목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 및 부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플라스틱제품과 보일러에 대한 비중의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용차 및 부품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예상과 다르게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승용차는 10년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전자기기 품목의 경우에는 큰폭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지난 2015년에 6천 4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금액이 2019년에는 5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콜롬비아의 제조업 기반이 소비재 생산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의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 국제 유가의 변화로 2016년 콜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2%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1.7%를 기록하였다.

Table 5. Korea's Exports with Colombia by Key Products

(Unit: Million USD)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Q)
Passenger Car & Part	581	473	312	278	247	185	102	83
Plastics	183	128	99	103	112	94	87	76
Boilers	162	124	94	95	74	77	49	37
Irons & Steels	73	98	78	58	68	72	73	22
Electrical Machinery	85	64	50	58	277	508	29	41
Rubber	86	50	43	46	38	23	15	11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37	35	30	32	47	37	77	43
Optical & Medical Instruments	37	20	22	29	22	24	26	12
Organic Chemicals	27	41	32	24	22	23	17	24
Pharmaceutical Products	16	12	11	14	15	15	32	22

Source: Korea Customs Service (2021).

한편 수출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낮은 품목이었던 의약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3천 2백만 달러의 수출기록을 달성하였다. 2020년은 한·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지 5년차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⁶⁾ 코로나로 인한 교역량의 감소로 수출이 둔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으며 커피와 구리에 대한 수입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광물산업이 최대의 기간산업으로 광물성 연료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⁷⁾

Table 6. Korea's Imports with Colombia by Key Products

(Unit: Million USD)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Q)
Coffee	76	85	82	102	89	92	102	54
Mineral Fuels	364	97	191	374	610	512	416	163
Cooper	16	43	52	75	44	57	52	26
Iron & Steel	99	50	46	38	33	3	28	16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9	13	11	10	11	4	8	5
Aluminium	11	6	9	10	9	6	3	3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	6	7	8	8	7	10	9	4
Live Trees & Flower	4	5	6	7	8	10	11	8
Part of Automobile	0	0	10	4	0	0	0	0
Other Products of Animal Origin	1	1	0	4	5	5	3	4

Source: Korea Customs Service (2021).

6) 2020년은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지 5년차에 해당되는 해로 한국산 제품은 총 1,547개, 콜롬비아산 제품은 총 670개 품목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다.

7) 콜롬비아의 수출구조는 광산업 43%, 농림어업 25%, 제조업 22%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2015년에 광물성 연료의 수입금액은 9천 7백만 달러였지만 발효해인 2016년에는 1억 9천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2018년에는 6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의 수입금액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2위 수입품목은 커피⁸⁾로 협정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대표 품목이며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감소한 2020년에도 커피에 대한 수입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리의 경우 협정 발효 이후 수입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5천 2백만 달러의 수입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이 중남미지역에서 수입하는 대표적인 품목인 구리는 칠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칠강제품에 대한 수입은 협정 발효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화훼류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콜롬비아 양국간의 교역품목을 정리해보면 한국은 공산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고 콜롬비아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역구조는 칠레, 페루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중남미지역국가들과의 교역현황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투자 및 교역상의 문제점

1) 현지투자의 문제점

2021년 1분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총 112억 달러로 전년대비 21.6%가 감소하였고 아시아, 북미,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⁹⁾ 한국은 2014년에 콜롬비아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되면서 국내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투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 한국의 콜롬비아 투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총 8개의 신규법인이 진출하였고 투자금액은 총 1천 3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양국간의 협정이 발효 되기 이전인 2015년에는 1천 2백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오히려 협정 발효 이후에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투자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Korea's Investment to Colombia

(Unit: Thousand USD)

	Number of New Firms	Number of Notification	Amount of Notification	FDI Amount
2021	0	1	50	50
2020	2	8	3,631	3,898
2019	3	7	3,480	2,544
2018	2	8	4,069	3,838
2017	1	4	1,074	10
2016	0	5	921	3,512
2015	2	11	6,988	12,264
2014	4	15	28,724	19,250
Total	14	59	48,937	45,366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21).

8) 콜롬비아는 전 세계 커피 수확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으로 전체 농지의 20%가 커피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9)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2억 달러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투자비중을 업종별로 정리해볼 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협정 발효 전인 2015년에 4백 8십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2016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2015년에 3백만 달러의 투자금액을 기록했지만 협정발효 이후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투자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2백 9십만 달러의 투자로 이어지며 전체 투자업종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의 주요 산업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은 GDP의 18.6%로 콜롬비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투자업종이 제조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현지 산업시장환경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 전과 달리 2018년에 65만 달러의 투자금액을 기록하였지만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콜롬비아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투자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외국 기업의 콜롬비아 투자업종을 분석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고 금융·부동산, 광업,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주요 국가들의 콜롬비아 투자업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정 수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8. Korea's Investment to Colombia by Industry

(Unit: Thousand USD)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Q)
Manufacturing	277	4,881	2,635	10	1,383	891	544	0
Wholesale & Retail	100	3,074	0	0	0	1,629	2,993	50
Trans. & Storage	0	153	125	0	1,200	0	350	0
Mining	8,556	455	47	0	104	0	0	0
Construction	50	20	0	0	0	0	0	0
Real Estate	25	0	0	0	0	0	0	0
ICT	10,243	3,681	705	0	500	0	0	0
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Service	0	0	0	0	650	23	10	0
Total	19,250	12,264	3,512	10	3,838	2,544	3,898	50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21).

2) 교역상의 문제점

한·콜롬비아간의 교역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광물성 연료 및 커피, 구리 등에 대한 수입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일부 품목의 교역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교역구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한국이 콜롬비아와의 교역에 있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콜롬비아 내수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콜롬비아의 대외교역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을 위해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지역

10) 콜롬비아의 주요 외국인 투자는 미국과 스페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억 달러대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험업에 대해서는 설립이 허용되지만 외국인 보험업체의 국내 지점 설치 및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투자를 불허하고 있다.

11) 콜롬비아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시장으로 특히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는 수입제품의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Klom, 2005). 한국이 콜롬비아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환경에 적합한 가격의 품목 다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콜롬비아의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협정 발효 전인 지난 2013년에 조사가 개시되었던 PVC필름에 대한 반덤핑규제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협정발효 이후인 2018년부터 부과된 플라스틱 가소제(DOP;di-octyl-phtalate)에 대한 반덤핑규제도 2021년 6월에 종료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다른 중남미지역 국가들에 비해 대외수입규제가 적은편이지만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15건의 반덤핑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¹²⁾ 하지만 미국에 대한 콜롬비아와의 수입규제는 상계관세 1건만 적용 중이다. 양국간의 교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콜롬비아의 경제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국에 대한 콜롬비아의 수입규제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무역수지의 불균형과 편중된 교역품목 그리고 소규모 현지투자가 지속된다면 콜롬비아의 수입규제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V. 양국간의 교역 및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1. 현지투자의 확대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자원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자재 수출산업을 경제발전 전략의 우선 순위에 두고 이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역자유화와 조세제도의 단순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왔다(Seo, Ji-Hyun, 2018). 콜롬비아는 기타 중남미지역 국가들과 동일하게 자국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대외시장개방정책을 1990년대부터 추진하여 왔다.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시키고 있다(Andres Felipe Oviedo and Lya Paola Sierra Suarez, 2019). 콜롬비아는 중남미국가 중에서 거시경제환경이 양호하고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won, Ki-Su, Kim, Jin-O, Park, Mi-Sook and Yi, Si-Un, 2015).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침체의 여파로 지난 2020년에는 투자유치액이 전년대비 46.3%가 감소하였다. 2020년에 한국은 중남미지역국가 중 브라질에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멕시코와 페루에도 2억 달러대의 투자를 하였지만 콜롬비아에는 3백만 달러대의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지역내에서 투자개방성이 높으며¹³⁾ 특히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문을 통해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문 제8.3조와 제8.4조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8.7조에서는 간접수용¹⁴⁾에 대해서도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협정문 제8.8조에서는 출자금, 이윤, 배당, 자본이득, 이자, 로얄티 지불 등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이익에 대한 송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금액면에서도 적지만 투자업종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효율적이면서 전략적인 투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콜롬비아는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을 통해 투자 관련 주요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다(CEPAL, 2020). 한국이 콜롬비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였는데 기존에 33%로 적용하던 법인세를 2022년까지 30%로 감소할 예정이다. 소득세의 감면이 있어서는 과학기술분야 투자 시 100%를 감면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50%를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투자 시 20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산업육성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것은 오렌지경제정책(La

12)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철강 품목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3) Fitch Solutions의 보고서에 의하면 콜롬비아는 중남미지역에서 칠레, 멕시코에 이어 투자개방성이 높은 3위의 국가를 차지했다.

14) 간접수용은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재산권 물수가 없더라도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가 조치로 정의되며 이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한국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Economia Naranja)이다. 그동안 콜롬비아는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Kwon, Ki-Su, Kim, Jin-O, Park, Mi-Sook and Lee, Ju-Young, 2012). 하지만 오랜지 경제는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20년 한국의 해외투자금액에 있어서 정보통신업에 대한 투자는 36억 달러로 전년대비 295.2%가 증가하였으며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5억 달러대로 전년대비 86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투자는 지난 2014년 1천만 달러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 이후부터는 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콜롬비아는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등록 후 참여하는 방식과 현지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기업들이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는 금융인센티브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Kwon, Ki-Su, Kim, Jin-O, Park, Mi-Sook and Yi, Si-Un, 2016). 한·콜롬비아간의 경제협력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한적인 투자업종을 탈피하여 정보통신업종과 같은 신규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인프라 육성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는 물류인프라의 취약성이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Park, Chong-Suk, 2020). 지난 2014년 콜롬비아는 4세대 인프라 프로젝트(Proyectos de Infraestructura 4G)를 통해 신규 도로건설을 추진했고 2021년에는 5세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콜롬비아의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경우 건설관련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시장접근의 용이성, 생산비의 절감, 글로벌 공급망의 확충 등 그 목적이 다양하다(Kim, Chong-Sub, Lee, Seoung-Ho, Lee, Jun-Hui, Kim, Min-Jung, Kim, Se-Won and Kim, Hee-Ra, 2020). 현재 한국과 콜롬비아간의 투자는 미미하지만 한국의 일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콜롬비아의 한국투자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목적은 아시아지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콜롬비아간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투자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반자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교역품목의 다변화 및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한·콜롬비아간의 교역품목을 분석해보면 특정품목을 위주로 편중된 교역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된 교역관계는 통상마찰과 무역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협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역품목의 다변화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따른 경기의 변동폭을 감소시키면서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콜롬비아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일부 교역품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시장의 특성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승용차와 부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의약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의약품 시장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보건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에서의 의약품 수입비중이 높지만 가격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경쟁력을 갖춘 국내 의약품의 수출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주도로 제약산업 육성 수립계획을 세우고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ECLAC, 2015). 국내기업들이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현지 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을 통해 상표등록과 위생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수입등록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적용 중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또한 의약품 이외에 의료용 전자기기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의 의료용 전자기기의 기술수준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과용 의료기

기 및 소모품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약품 전자기기는 고가의 제품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7년내 수입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수출이 유망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화장품과 같은 미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콜롬비아의 화장품 시장은 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한국제품의 경우 수출이 전년대비 112%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지역내에서 최대의 화장품 시장은 브라질이지만 칠레, 페루보다 콜롬비아의 화장품시장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틈새시장으로서의 전략적인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콜롬비아의 승용차시장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⁵⁾ 콜롬비아는 친환경자동차의 관세철폐 및 부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91.8%가 증가했으며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6.2%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콜롬비아 수출품목이지만 전기/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차량의 수출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콜롬비아간의 교역품목 다변화에 이어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의 진출의 확대가 요구된다. 지난 2020년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 60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비발효국과의 교역은 15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단기간내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협정대상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해주었어도 기업들의 협정활용률이 낮으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즉 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기업들이 협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수출입증대와 같은 다른 교역환경의 변화 및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성과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정을 활용했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협정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의 경우 캐나다가 95.4%, 수입의 경우 칠레가 99.1%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활용률을 살펴보면 수출은 기계류, 수입은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47.9%와 89.3%로 수출보다는 수입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한국과 콜롬비아간의 교역규모에 있어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에 있어서는 수출활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020년 국내기업의 콜롬비아 수출금액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총 2억 6천 8백만 달러를 수출했고 중견기업은 총 1억 1천 9백만 달러 그리고 중소기업은 총 2억 5백만 달러를 수출하였다.¹⁶⁾ 한국의 중남미지역 시장 수출에 있어서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은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기업위주의 시장 진출이 아닌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장진출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콜롬비아와의 교역량 증가를 위해서는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수혜품목 및 현지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틈새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그동안 한국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였다. 특히 중남미지역 시장의 선점을 위해 칠레와 역사상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연이어 페루,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중남미지역은 한국의 대외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효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칠레와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콜롬비아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중남미지역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를 하기 위함이었

15) 콜롬비아의 승용차 시장은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고 석유가격에 따라 판매량이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6) 2020년 한국의 중남미지역 전체 수출액은 총 194억 8천 6백만 달러이며 이중 대기업은 총 118억 5천 5백만 달러, 중견기업은 총 38억 4천 1백만 달러, 중소기업은 총 37억 9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6년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의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교역품목의 변화가 있었지만 승용차 및 부품에 대한 수출과 원자재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관세가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교역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둔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콜롬비아간의 교역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편중된 교역품목에서 탈피하여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는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최근 의약품, 의료용 전자기기, 화장품, 친환경자동차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시장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장환경에 적합한 신규품목의 발굴과 함께 현지 시장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가격의 책정도 필수적인 검토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제조업에 국한된 투자업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투자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산업육성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투자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국간에 투자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득해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은 수출보다는 수입측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및 기대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선점 및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활용률 올릴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콜롬비아와의 교역규모를 늘리고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 환경에 맞는 틈새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업수요의 변화에 따른 투자업종의 전환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 시점에 진행된 선행연구와 달리 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의 교역환경의 변화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자료 접근의 한계와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콜롬비아에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한 기업들을 상대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보다 현실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ferences

- Albor, Gustavo Rodriguez, David Ruquetta Cediell and Daniela Lopez Valderrama (2017), "Realismo Magico como Referente Historico: Primacia del Capital y Fragilidad Institucional en Colombia,"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0(1), 34.
- Andy, Klom (2005), "Latin America and International Trade: Regionalism and Beyond,"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40(3), 363.
- CEPAL (2020), La Regula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irecta, 24.
- Cin, Beom-Cheol (2012), "An Analysis of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Effects of the Korea-Colombia FTA," *Journal of Social Science*, 38(3), 350.
- ECLAC (2015), Rising Concentration in Asia-Latin American Value Chains, June, 179.
-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32.
- Jang, Gi-Young (2010), "FTA Between Korea and Colombia and Countermeasure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6(3), 56.
- Kim, Chong-Sup, Seung-Ho, Lee, Jun-Hui, Lee, Min-Jung, Kim, Se-Won, Kim and Hee-Ra, Kim (2020), *Trade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KIEP Working Paper No. 20/04), Seoul: KIEP, 235.
- KOTRA (2021), 「2021 A Regional Approach: Colombia Entry Strategy」, 21(041), 29.
- Kwon, Ki-Su, Jin-O, Kim, Mi-Sook, Park and Ju-Young, Lee (2012), *Analysis on Latin America's Aid Demand and suggestions for the priority Sectors* (KIEP Working Paper No. 12/39), Seoul: KIEP, 135.

- Kwon, Ki-Su, Jin-O, Kim, Mi-Sook, Park and Si-Un, Yi (2015), *New Industrial Policy of South American Countries and Policy Suggestions for Industrial Cooperation* (KIEP Working Paper No. 15/22), Seoul: KIEP, 80.
- Kwon, Ki-Su, Jin-O, Kim, Mi-Sook, Park and Si-Un, Yi (2016),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in Latin America's Infrastructure Market and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KIEP Working Paper No. 16/20), Seoul: KIEP, 233.
- Oviedo, A. F. and Lya Paola Sierra Suarez (2019), "The Importance of Terms of Trade in The Colombian Economy," *CEPAL Review*, 128, 130
- Park, Chong-Suk (2020), "A Study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Pacific Alli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1(4), 313.
- Park, Mi-Sook (2010), *FTA Negotiation and Countermeasures Between Korea & Colombia*(KIEP Regional Economic Focus 10/13), Seoul:KIEP, 7.
- Seo, Ji-Hyun (2018), "Grounding Economic Globalisation: The Case of Dominga Project and Environmentalism in Punta de Choros, Chil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1(1), 64.